중고가게 물품들 도로 점령 보행 방해에 사고위험 '아찔'

대부분 영세업체 … 자치구 단속 '골머리'

"상인들이 인도에 내놓은 물건들 때문에 차도를 걸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직장인 김모(27·광주시 서구 농성동)씨는 지난 23일 출근을 하던 중 아찔한 경험을 했다. 광주시 남구 대남로 주변 인근에 쌓여있던 가전제품 더미를 피하기 위해 무심코 도로로 내려선 순간 앞에서 오던 승용차와 부딪힐 뻔한 것이다.

김씨는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가전제품이 온통 인도를 가로막고 있어 차도로 내려갔는데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며 "무단으로 쌓인 물건들 때문에 행인들이 차도를 걸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과 남구 월산동 인근 순환도로 주변에 중고가전물품 업소들이 몰려들면서 서구청과 남구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소들이 인도에 내놓은 각종 중고가전제품과 물품들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서구에 따르면 '인도 위에 방치된 무단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민원전화가 하루에도 30~40통씩 걸려와 1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과 차량 2대를 매일 가동하고 있다. 남구도 하루 20~30통의 신고 전화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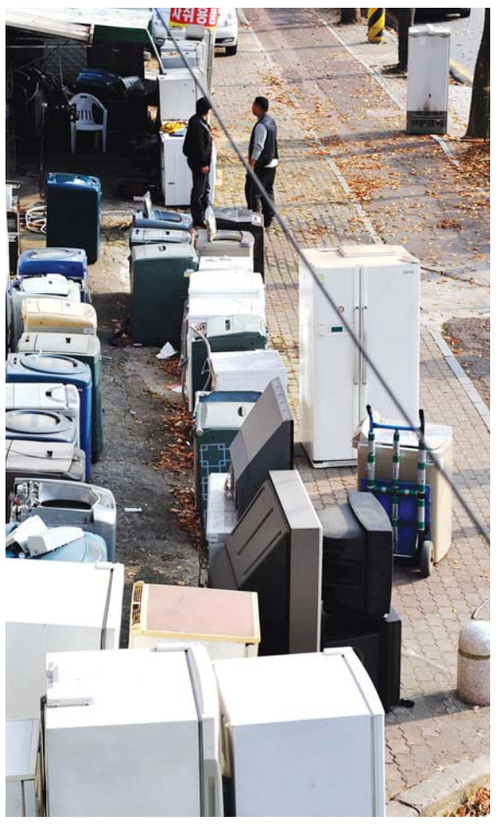
남구 백운고가에서 서구 농성로 방향으로 이어진 대남로에는 도로 양쪽으로 현재 50 여곳의 중고물품업소가 몰려있다. 이들 업소는 냉장고 및 세탁기 등 대형 중고가전제품들을 버젓이 인도 위에 전시해 팔고 있다.

현재 업소 주인들은 구청과 협의를 거쳐 '인도 위에 가전제품 진열을 한 줄 정도 하는 것은 괜찮다'는 답변을 얻은 후 진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소들이 한 줄을 넘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인도에 마구 진열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구청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단순한 계도 활동 외에는 마땅한 해결법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현행 도로법 제38조와 제45조에는 도로상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구청은 인도 위에 물품을 무단적치한 채 장사하는 상인들이 대부분 영세업자다 보니 냉정하게 법 적용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계도기간에는 상인들이 물품을 상점 안으로 집어넣더라도 계도가 끝나면 다시 꺼내서 장사하기 일쑤여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 남구 월산동 대남로 주변 보도에는 중고물품 중개업소들이 무단으로 내놓은 가전제품들이 즐비해 보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서구 관계자는 "집중 단속기간을 마련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문제가 되풀이돼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민 김모(44·남구 주월동)씨는 "노상의 적치물 문제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구청이 단속에 손을 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구청은 시민의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수시 2차 경쟁률 상승

광주·전남 주요 대학 … 일부 학과 최고 34대 1까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상보다 어렵게 출제된데다 내년부터 입시제도가 변경되는 이유 등으로 인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의 수시 2차 모집 경쟁률이 크게 올랐다.

24일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2011학년도 수시 2차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부분 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수시 1차 경쟁률이 높았던 대학들만이 보합세를 보였다.

동신대는 286명을 모집하는 수시 2차에 총 2078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이 7.3대 1에 달했다. 지난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전체지원자가 무려 47%나 늘어난 것이다. 학과별로는 간호학과가 5명 모집에 170명이 지원해 34대1로 가장 높았으며, 경찰행정학과(25.3대 1)·물리치료학과(20.6대1)·한의예과(20.2대1) 등의 순이었다.

광주대도 374명 모집에 2285명이 지원해 6.11대로 지난해 경쟁률 4.05대 1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학부별로는 간호학과가 21.38대 1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광주여대는 270명 모집에 1489명이 지원해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4.33대 1에 비해 상승했으며, 간호학과(18대 1)·치위생학과(16대 1)의 경쟁률이 높았다.

호남대도 386명 모집에 1582명이 지원, 지난해 2.8대 1에서 올해 4.1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다.

수시 1차 경쟁률이 높았던 조선대는 2.81대 1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동구, 6년전 부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7만여건 독촉장 발송

광주시 동구가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결국 6년 전에 부과한 과태료 독촉장을 발송하고 나섰다.

24일 동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7만여 건(28억원 상당)에 대한 독촉장을 최근 보냈다. 9월에 2005~2006년, 지난달에 2008~2009년, 이번 달 들어 2004년 발생분을 발송했으며, 건당 250원씩 모두 1750여만 원의 발송료가 소요됐다.

동구는 이미 지난 7월 재정이 바닥나 인건비 주기도 버거워지자 최후 수단으로 체납 세외수입을 거둬들이기 위해 과태료 징수팀까지 별도로 꾸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이는 보통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해당 자동차를 압류한 뒤 명의변경이나 폐차할 때 납부하도록 했던 기존 업무처리와 큰 차이가 나 독촉장을 받아본 주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위반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이미 낸 것 같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동구 교통과 과태료 징수팀 관계자는 "독촉장 발송에 많은 예산이 들어 고지를 자주 하지 못했으며 이번 발송은 체납 사실 고지할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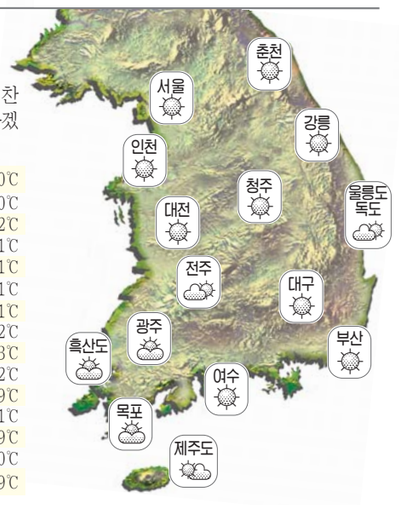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16분 해짐 17시 22분 / 달뜸 20시 38분 달짐 10시 20분

찬 바람이 분다

낮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다

광 주	구름많음	3/10℃
목 포	구름많음	5/10℃
여 수	구름조금	7/12℃
나 주	구름많음	1/11℃
완 도	구름조금	5/11℃
구 례	구름조금	1/11℃
해 남	구름조금	2/11℃
장 흥	구름조금	2/12℃
고 흥	구름조금	3/13℃
순 천	구름조금	5/12℃
영 광	구름많음	2/9℃
진 도	구름조금	4/11℃
전 주	구름점차적어짐	2/9℃
남 원	구름조금	0/10℃
흑산도	구름많음	8/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관심	낮음

	밀물	썰물
목포	03:58 16:44	09:12 21:58
여수	11:21 23:19	04:40 17:2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1(수)
날 씨						
최저/최고	0/10	1/10	1/12	0/13	3/14	6/10

광주 학생 임해수련원 2013년 고흥에 개원

광주 학생들의 해양 수련활동의 공간이 될 임해수련원이 오는 2013년 문을 연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24일 교육청 2층 상황실에서 박병종 고흥군수와 '광주 학생임해수련원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수련원은 고흥군 도화면 발포지구 12만여㎡에 들어서며, 오는 2013년 개관할 예정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500명 수용 규모로 사업비는 2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